

LegalTimes

www.legaltimes.co.kr

LAWYER OF THE YEAR 2016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ISSN 1976-488X 정가 11,000원

(주)리걸타임즈

여성변호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법률 인공지능’ 개발하는 임영익 변호사
2017 개정 세법 내용

다음에 소개하는 17명의 변호사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며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변호사들이다. 그들은 소송과 국제중재에서 이기고, 수조원대의 M&A와 부동산 거래를 수행했으며, 한국 기업의 해외진출,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뒷받침한 한국 경제의 숨은 공로자들이다. 리걸타임즈가 선정한 '2016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 17명의 활약상을 조명한다. 편집자

2016 올해의 변호사



LAWYER
OF THE YEAR
2016

부동산 정원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의사결정 투명 공개가 조합사업 성공 지름길”

법 무법인 지평의 정원 변호사에게 빠지지 않고 따라붙는 낙네임이 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라는 영예로운 호칭이다. 그는 조합원이 64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의 자문을 맡아 관련 분쟁에 단골 투입되고 있으며, 응암8구역재개발조합,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천에 있는 약대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과 관련해서도 소송사 또는 조합 측을 맡아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등을 수행하는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다양한 분쟁에 자문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자문 유명

이와 함께 그가 활발하게 자문하는 또 하나의 영역은 농협 등 채권단을 맡아 PF 대출금 8000억원을 날릴 위기에서 구해낸 김포신곡6지구 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정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지평 건설부동산팀에선 과도한 ‘지분 쪼개기’라는 이유로 조합 설립 무효 판결을 받은 김포신곡지구 개발사업의 채권단에 담보로 잡은 땅을 처분해 청산하는 방안 대신 조합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는데 성공했다.

대규모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과 함께 건설부동산 분야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소송도 정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는 서울 삼성동의 옛 한전부지 위에 현대차그룹이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범위를 잠실운동장이 있는 잠실까지 확대해 1조 4000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송파구도 쓸 수 있게 한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가 무효라며 강남구 등이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시를 대리해 지난 7월 소각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구로세무서가 체납세금 확보를

위해 찾아내 압류한, 은마아파트 내에 있는 시가 300억 원 상당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소유 땅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항소

심에서도 압류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정 변호사는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분리처분될 수 없다는 집합건물법상의 금지조항과 함께 비록 은마아파트가 이 법 시행 전인 1979년 준공되었지만, 문제의 땅이 1984년 집합건물법 시행 당시 분양자인 정태수 명의로 유지된 이상 그 때부터는 분리처분 금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해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정태수 땅 압류 무효” 판결

또 법인세 인하 효과를 반영해 재정지원금 지급을 축소해야 한다는 부산시의 주장과 지급 축소는 부당하다는 맥쿼리의 주장이 맞선 부산의 백양터널 민자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산시를 맡아 관련 약정의 특수성에 주목해 지난 10월 승소하는 등 정원 변호사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부의 잦은 분쟁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그것이 당장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사업 준공을 앞당기고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

